

I · N · T · E · R · V · I · E · W

# 협회 법률고문/법무법인 '이지' 지철호 변호사

(사)한국에너지관리사업협회의 법률고문을 맡게된 계기는?

지난해 한국에너지절약협회의 법률고문으로 있던 제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협회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약 2개월간 협회장업무를 수행하면서 협회의 업무, 이사 및 지부장님들과 알게 되고, 서로 긴밀히 협조하면서 인간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회장직무대행업무를 마무리한 단계에서 협회의 법률고문을 맡아 달라는 제의를 받고 흔쾌히 허락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률고문으로서의 각오가 있다면?

열관리사업회는 에너지중조사사업을 비롯해 각종 수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국의 수많은 회원들이 소속된 단체이므로 협회의 시행 사업은 물론, 기타 법률적인 업무, 정관의 검토 등에 대한 법률자문으로서의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 개개인의 법률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조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법률고문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 회원들 개개인의 법률적 상담은 물론이고 각종 법률

문제의 자문을 요청하시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밖에도 협회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라도 일상생활의 사소한 문제라도 관련 법률지식에 관한 교육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법무법인과 일반 변호사사무실과의 차이점은?

법무법인은 5인이상의 변호사(그중 1인이상이 법원조직법 제42조에 규정된 10년이상의 법조경력 또는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조교수 경력자일 것)로 구성하여 업무를 보다 조직적·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여기서는 공증업무도 할 수 있으며 세금도 법인세를 내는 점에서 일반 변호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명의 변호사가 협력하여 업무를 처리하므로 보다 풍부한 자료와 의견검토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전문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향후 열관리사업회의 나아갈 방향이 있다면?

열관리사업회의 에너지중조사와 같은 수익사업은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업의 지속적인 육성

과 개척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의 열관리인들의 대변인이라는 중책을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회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열관리인들이 갖는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좋은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를 통한 회장님과 이사, 지부장들의 협조와 조력을 극대화시켜 나간다면 협회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회장님과 협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난해 어려운 시기에 협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매주 이사회를 열어 문제를 토의해 나가면서 여러 이사, 지부장님들의 도움으로 협회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 개인적으로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백두인 회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과거의 잘못된 점들을 개선하고, 협회를 새롭게 발전시키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고, 부회장님, 이사, 감사 및 지부장님들이 모두 같은 생각으로 상호 협조를 이끼지 않고 계신 모습을 볼 때 열관리사업회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 추측해 봅니다.

앞으로 협회의 중앙본부는 더욱 회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늘 대화를 통

해 의견교환을 수렴하면서 보다 나은 협회의 미래를 개척하는 전문기술인 협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철호변호사 경력



- 서울대법대졸업(1982)
-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1984), 법학박사(1995)학위취득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1984)
- 의정부시 법률고문(1997-2001)
- 솔로몬베터컨설팅 수석컨설턴트(2000-2001)
- 한국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고문변호사(2000-현재)
- 법무법인 '이지' 대표변호사(2002-현재)
- 한국에너지관리사업협회 고문변호사(2003)
- 신용보증기금(의정부, 동부채권관리단, 종로, 영등포, 테헤란로 지점) 고문변호사(2003)

새로운 개념, 새로운 이름  
 ○섹션잡지 에너지설비관리 탄생!  
 ○이제 에너지사용설비에 대한 관리문제는 에너지설비관리지 한권으로 해결하십시오.

에너지와 관련된 잡지는 많습디다 하지만 모두 구독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큽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에너지관리자는 에너지설비관리지 한권으로 해결합니다.

정기구독 문의  
 T.(02)2679-6464~5  
 #정기구독료 캐쉬백제도 질찬 시행중#  
 정기구독료 3만원 돌려받자!  
 에너지설비관리지 구독자로서 다른 정기구독자를 유치해주시면 3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드립니다.

KOREA ENERGY INFORMATION CENTER  
 한국에너지정보센터